이중섭 작 '흰소'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 조우

전남도립미술관, 17일~10월 29일

43명 작가 60여점 전시…3부 구성

오지호 작 '복사꽃 있는 풍경'

김환기·천경자·이중섭·박수근…근현대미술 거장 한자리에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지난 2021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이건희 기증작' 전시회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9월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개최됐던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전도 화제의 중심에 설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지난해에도 광주시립미술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도 이건희컬렉션을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를 연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기증작까지 폭을 넓혀 총 43명의 작가의 6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세 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주제는 작가의 에세이집이나 화문(畵文) 집의 구절에서 선별, 발췌했으며 전시장에는 작품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자료를 곳곳에 배치해 관객의 이해를 돕도록 배려했다.

1부 주제는 '자연을 벗하여'이다.

"자연을 벗하는 사람은 항상 정온한 마음으로 있는다"는 김기창의 말에서 주제를 잡았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연을 예찬했던 회화와 조각이 주인공. 자연의 감흥을 해석한 유영국을 비롯해 자연의 이미지를 아름다운 시상으로 구현한 김환기, 밝고 따뜻한 남도의 정취를 초점화한 오지호, 산수에 대한 경험을 자유로운 선과 색으로 물들인 수묵화가 이상범, 허백련 등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2부는 "삶과 예술의 중간에서 자연을 이해한다"라는 장욱진의 말에서 주제를 잡았다. '삶과 예술의 사이에서'는 일상의 모습에서부터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난다. 무엇보다 인물의 선함과 진실함에 천착했던 박수근의 작품이 눈에 띈다. 또한 소를 통해 한국적인 정서와 그리움 등을 표현했던 이중섭, 자연 속에서 단순하면서도 동화적인 작품 세계를 펼쳤던 장욱진을 만난다. 아울러 인간이 사회와 마주한 실존을 성찰한 김영주, 류경채 등의 작품과 사실주의적 재현과 정제된 조형성이 돋보이는 권진규의 조각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장욱진 작 '나무 아래 정자'

재료와 양식에 대한 실험을 전제로 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3부가 그것. "예술은 표면을 추구하며 표면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곽인식의 말에서 연유한다.

이곳에서는 재료의 물질성과 형태의 근원에 집중한 김종영, 김정숙의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관념적 작품세계를 펼친 이응노, 하인두, 문학진, 방혜자 등의 추상회화가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각 전시장에는 주요 작가의 글귀가 배치가 돼 있어 시대와 작가의 예술을 깊이있게 만날 수 있다. 도립미술관은 그동안 수집·연구해온 자료를 영상물과 인쇄물로 정리해 자료와 아울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전시와 관련 한국 미술사 특별강연도 네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막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며 식전 행사인 앙상블 콘서트도 펼쳐진다.

이지호 관장은 "2021년 전시는 기증받은 19점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기증작까지 폭을 넓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전시는 전남 출신 근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전시는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현장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립미술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름 끝자락 '삶이 축제가 되는 BOOK 소리'

인문지행, 독서아카데미강좌 23일부터 푸른마을공동체센터

파블로 네루다, 헤밍웨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헤르타 뮐러.

여름의 끝자락서 인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독서아카데미 강좌가 열린다.

인문지행은 '삶이 축제가 되는 북(BOOK)소리'를 주제로 독서아카데미 강좌를 오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푸른마을공동체센터(동구 동명로 67번길 29)에서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독서문화를 정착하고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프로그램은 모두 5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사는 인문지행 대표인 심옥숙 박사.

첫 강의는 '시인과 우편배달부가 부르는 삶의 찬가'를 주제로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삶을 조명한다. 두 번째 강의 '노인과 소년의 바다 빛 우정과 사랑'에서는 헤밍웨이의 작품을 다룬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는다'라는 명대사를 남긴 헤밍웨이의 작품을 토대로 삶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희망을 조명한다. 세 번째 시간에는 '고통 너머, 다시 오는 생명의 축제'로는 니체의 삶의 긍정 철학과 디오니소스의 고통 너머의 축제를 나눌 예정이다.

지난해 인문지행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장면. 〈인문지행 제공〉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벨문학상 작가인 헤르타 뮐러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진실을 마주하는 문학의 용기'가 곧 삶을 위한 숨쉬기이자 구원이었던 헤르타 뮐러의 작품과 생애를 들여다본다.

마지막 시간에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시인 릴케를 만난다. '시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삶의 고난을 구도의 자세로 마주하며 위로의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릴케의 시와 삶을 조명한다.

인문지행 관계자는 "이번 삶이 축제가 되는 북소리 아카데미는 문학의 다양한 장르에서 삶의 긍정을 추구하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체적인 자기회복능력과 인문적 지혜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선착순 마감. 문의 010-5205-566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으로 떠나는 글로벌 리더 세계여행

조선대 지역인문학센터, 17일부터 4차례 진행

서양음악의 발상지인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은 유럽 음악의 '보고'로 불린다. 이들 국가의 음악과 이야기를 부모님과 아이가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센터)는 HK+인문학 강좌 '음악으로 떠나는 글로벌 리더 세계여행(Ⅰ)'을 오는 17일부터(오후 5시) 총 4차례 광주학생예술누리센터에서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음악'을 매개로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정서적 교감을 복돋운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먼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강의가 눈길을 끈다. 17일에는 조선대 외래교수이자 소프라노인 김선희를 오페라 '라보엠'을 주제로 만날 수 있다. 푸치니의 낭만적 선율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낼 예정이며, '라보엠'의 '로돌포 아리아', '무젯타의 왈츠', '미미의 아리아' 등 명곡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18일 강의에서는 전남대 교수이자 피아니스트 박은식이 '독일음악의 전통과 루드비히 반 베토벤'에 대해 이야기한다. '베토벤 소나타 1번 F단조 2번'과 '베토벤 소나타 14번 C단조 27번' 등 소나타곡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소프라노 김선희

지휘자 김병무

이어 21~22일에는 지휘자들이 초등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21일에는 호남신학대 교수 김병무가 '러시아 음악의 계보를 잇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백학'과 '카추샤' 외 바이올린 곡을 선보일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22일에는 지휘자 변욱이 '베를린의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베를린필하모니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대에는 바리톤 조재경과 피아니스트 김혜안,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이 함께 오를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센터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 멜로영화 클래식 '미워도 다시 한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24일 광주독립영화관 상영

그때 그 시절,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명작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2023 한국 멜로영화 클래식' 2탄으로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1968)'〈사진〉을 오는 24일(오전 11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한다. 정소영 감독의 이 작품은 당시 전계현, 김정훈이 주연을 맡아 '한 시절을 풍미한 고전'으로 손꼽히는 영화다.

작중 유치원 교사 전혜영(문희)은 김신호(신영균)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혜영은 하숙하던 신호를 돌봐주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데, 어느 날 두 아이를 데리고 신호의 아내(김정훈)가 나타난다. 그가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알고 혜영은 충격에 빠져 종적을 감춘다.

8년의 세월이 흐른 뒤 혜영은 아들 영신(김정훈)과 함께 신호를 찾아간다. 영신은 신호의 슬하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이복형제들과의 갈등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새 가정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통속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품.

한편 영화관은 이번 상영회를 12월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맨발의 청춘', '8월의 크리스마스(1998)'을 시작으로 '우묵배미의 사랑(1990)', '봄날은 간다(2001)', '오아시스(2002)' 등을 매달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 5000 원.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독립영화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화순 능주고 하린, 국제대회 '모차르트 콩쿠르' 특별상

피아노 부문

화순 능주고(교장 박재곤)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하린〈사진〉 학생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모차르트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화제다.

하린 학생은 독일 베를린음대 프륄 교수에게 사사하며 김지영 교수, 이혜영 교수 등으로부터 지도받아 왔다. 서울 삼호아트홀에서 열린 '모차르트 콩쿠르 한국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5세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하린 학생은 지휘자 김하람(세종필오케스트라)에게 "천재적 소질을 갖고 있으며, 명확히 음을 구분하는 청음 실력이 세계적이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하린 학생은 "이번 콩쿠르에 출전하며 생활 속에 음악이 배 있는 베를린을 느끼게 됐다"며 "우리 고장도 음악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되길 바라며, 그 일환으로 세계적 시야를 갖는 음악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차르트 콩쿠르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대회이다. 차기 대회는 오는 2025년 2월 베를린에서 예정돼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